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부씨의 견해*

황대우

(고신대학교, 종교개혁사)

[초록]

이 논문은 교회와 초기 정부의 관계를 다루는 글이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동의어로 본다. 이런 견해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다른 것으로 보는 현대 신학자들의 견해와 다르다. 부씨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한다. 그런데 부씨 신학의 특징적인 요소는 그리스도의 나라 개념이다. 부씨에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통한다. 하지만 부씨에게 그리스도의 나라는 단순히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지금 이 세상은 사탄과 죄악의 영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나라일 수 없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인

논문투고일 2018.02.07. / 심사완료일 2018.02.20. / 게재확정일 2018.03.05.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조금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상에서 확장시키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regnum Dei)인 교회 안에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다스리신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적인 실재이자 동시에 하늘 나라다. 그 나라는 항상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실현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regnum Dei)로서 교회와 “세상 나라”(regnum mundi)로서 국가는 서로 혼합될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다.

교회와 국가는 종말까지 지상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병존하지만 반드시 상호 협력해야 한다. 교회는 영적인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죄인들 앞에서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 반면에 세상 정부는 물리적 검을 가지고서 모든 공개적인 죄들을 처벌한다. 세상 정부는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개혁하기 위해 반드시 교회와 함께 공역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정부는 이 세상에서 최선의 정부 통치 형태로서 “기독교 공화국”(respublica christiana)이라 불릴 수 있다. 교회와 국가는 각자, 무엇보다도 먼저, 유일한 왕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부씨의 독특한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부씨의 견해는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으로 구분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성 개념 뿐만 아니라, 두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로 이해하는 루터의 두 나라 개념과도 구분된다.

키워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 부씨, 루터, 정부, 권력

I. 서론

오늘날 신약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전혀 다른 것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서로 다른 무엇이 아닌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제네바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와 상호 교환이 가능한 용어로 이해하고 사용한다.¹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스트라스부르 종교개혁자 부씨도 칼빈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한 실체로 간주하는 부씨의 사상 속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개념이다.²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신약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는 부씨 신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상 이 개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동일시 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부씨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하는 교회와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국가 혹은 시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살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도성을 세상 국가 즉 세속 도성과 구분하는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두 도성 사상과 이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루터의 두 나라 개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부씨의 관점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의 작품을 통해 상세하게 살필 것이다.

II. 그리스도의 나라

1 칼빈의 하나님 나라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황대우, “갈뎡의 교회론과 선교,” 『선교와 신학』 제24권 (2009): 66-72.

2 스트라스부르 종교개혁자 부씨의 “그리스도의 나라” 개념을 시대별로 매우 상세하게 분석한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Andreas Gäumann, *Reich Christi und Obrigkeit. Eine Studie zum reformatorische Denken und Handeln Martin Bucers* (Bern: Verlag Peter Lang, 2001).

“그리스도의 나라”(Regnum Christi)라는 개념은³ 부씨의 교회론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⁴ 부활과 승천 이후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자신의 통치를 자신의 나라 시민인 자기 백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온 세상에 대해서도 수행하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세상의 어떤 수단이나 도구나 무기 없이도 오직 자신의 말씀과 성령만으로 그 권세를 실행하고 관리하시기 때문이다.⁵ 그분 자신의 “고유한 직임”(munus proprium)인 복음선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의 나라를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공화국”(sola Christianorum Respublica)으로 건설하신다.⁶

그러므로 각각의 지상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복음의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는 교회들은 그분께 속한 것이 아니다.⁷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 즉 왕직은 무엇보다도 그분의 나라인 교회에 적용되어야 한다. 부씨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3 “그리스도 나라의 특성들”(propria regni Christi)에 관한 부씨의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François Wendel, ed., *Martini Bucerii opera latina*, Vol. XV. *De regno Christi* (Gütersloh: C. Bertelsmann Verlag, 1955), 7-14와 34f. 이후로는 ‘MBOL 15, 1(*De regno Christi*. 1550)’로 인용.

4 참조. G. Hammann, *Entre la secte et la cité. Le projet d’Église du Réformateur Martin Bucer* (1491-1551). Histoire et Société (Genève: Labor et Fides, 1984), 110.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W. Pauck, *Das Reich Gottes auf Erden, Utopia und Wirklichkeit. Eine Untersuchung zu Butzers De regno Christi und zur englischen Staatskirche des 16. Jahrhunderts*, Arbeiten zur Kirchengeschichte 10 (Berlin : de Gruyter, 1928), 13-19.

5 MBOL 15, 5-6 (*De regno Christi*. 1550): “Potestatem acceperat a patre omnem in coelo et terra, Matth. ultimo [18]. Eam autem potestatem exercebat et adm[ini]strabat uerbo tantum et Spiritu, nullis omnino adminiculis, instrumentis aut armis mundi.”

6 B. Ev. (1527) I, 127b (= B. Ev. (1536), 93).

7 MBOL 15, 28 (*De regno Christi*. 1550): “..., quod omnis Christi Ecclesia debet esse euangelizatrix ita, ut in omni sanctorum coetu sonet uox Euangelii assidue, fiducia maxima et studio ardentissimo. In quibus ergo Ecclesiis uox illa silet, hae frustra se Christi Ecclesias uocant.”

교회라는 실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의심의 여지 없이 정부는 황제의 말이 들려지고 그의 명령이 지켜지는 황제직에 속한 것이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한 소망으로 들려지고 그러한 열심으로 보존되는 곳은 또한 분명히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참된 교회이다.”⁸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속에 실제로”(realiter apud et inter nos) 존재한다.⁹ 이것이 부씨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개념에 기본적인 것이다.¹⁰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상적 일시성과 천상적 영원성이라는 이중적 차원의 것이다.¹¹ 그리스도의 나라의 지상적 현재성은 교회이다.¹²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분께서 이 세상 속에서 소유하고 계시는 자신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¹³ 이러한 지상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나라의 모습을 실현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자신의 나라의 참된 시민으로 주신

-
- 8 R. Stupperich e.a., ed., Martin Bucers Deutsche Schriften 1. *Frühschriften 1520-1524*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60), 44 (Das ym selbs. 1523): “Dann wie kein zweifel ist die Statt ghor zum keyserthumb, in der des keyser wort gehort und sein gebott gehalten würt. Also ist es gewißlich auch das reich Christi und die wore kirch, wo das wort Christi mit solchem lust gehort und fleiß bewart würt.” 이후로는 ‘MBDS 1, 44 (Das ym selbs. 1523)’로 인용. 참조. MBOL 15, 33 (De regno Christi. 1550): “... Dominum et regem nostrum Christum omnia haec effecturum propter gloriam nominis sui, atque eo, ut regnum et ciuitatem habeat sanctam in terris, hoc est, Ecclesiam, eamque omni pietate et uirtute exornatam.”
- 9 MBOL 15, 3 (De regno Christi. 1550).
- 10 부씨가 “나라”(regnum)라는 용어를 말할 때 그가 그것으로 통치나 왕의 직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나라도 의미한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파우크의 견해에 반대한다. Pauck, *Das Reich Gottes*, 6: “Wir haben das regnum Christi als die Herrschaft Christi zu erklären, die sich nur in den wahren Christen auswirkt, denen Christus den Geist verleiht.”
- 11 B. Ev. (1527) I, 127a-18a와 II, 143a-44a (= B. Ev. (1536), 93와 322). 참고. Koch, *Studium Pietatis: Martin Bucer als Ethiker*. Beiträge zur Geschichte und Lehre der Reformierten Kirche 14 (Neukirchener Verlag, 1962), 51-54.
- 12 Koch, *Studium Pietatis*, 51.
- 13 MBOL 15, 3 (De regno Christi. 1550): “... sit regnum Christi eius hominibus, quos habet in hoc saeculo, ...”

자들을 자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설복하신다.¹⁴ 성령의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오지도 머물지도 못한다.¹⁵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에 첨가되었다.¹⁶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끊임없이 “폭군인 사탄의 나라”(regnum satanae tyranni)와 싸운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의 폭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사탄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다.¹⁷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대한 “영원한 구원의 관리요 경영”(administratio et procuratio salutis aeternae)이다.¹⁸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장수하는 씨”(semen longaeuum)라 부르신다.¹⁹ 부씨는 “하나님의 유일한 도성”(sola civitas Dei)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불러모으시는 선택 받은 자들의 교제 즉 공동체인 “성도들의 교회”(Ecclesia Sanctorum)라고 정의한다.²⁰ 루터(Luther)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처럼²¹ 부씨에게 있어서도 “기독교의 몸”(corpus christianum)은 단지 “신비한 몸”(corpus mysticum)인 교회를 의미한다.

14 MBOL 15, 5 (De regno Christi. 1550): “Quos enim pater ei donasset ueros regni sui ciues, hos uerbo permouit et Spiritu suo, ...”

15 MBOL 15, 26 (De regno Christi. 1550): “..., neminem in regnum uenire Christi et in eo perseuerare, nisi afflatum et innouatum Spiritu eius, ...”

16 B. Eph. (1527), 66aver: “... beneuolentiam DEI, qua & ipsi regno Christi adducti fuerant, ...”

17 B. Eph. (1527), 48b-49aver: “Etenim qui filii Dei sunt, hos agit spiritus Dei Rom. 8. Facessit quidem & his aduersarius negocium, eo quod corpus peccato obnoxium adhuc circumferunt, uerum quoniam eius tyrannide per Christum uindicati sunt, exercere illos potest, perdere non[49a] potest, ...”

18 MBOL 15, 54 (De regno Christi. 1550). 참고. Pauck, *Das Reich Gottes*, 13.

19 MBOL 15, 30 (De regno Christi. 1550).

20 MBDS 7, 98 (Von der waren Seelsorge. 1538): “... wir sein reich und leib.”

21 K. Holl, *Gesammelte Aussätze* I, 340f.

III. 아버지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

부씨는 기독교 즉 지상 교회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국과 동일시 한다.²² 사탄의 나라는 파괴될 것이다.²³ 반대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와 동일하기 때문이다.²⁴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맹세로 세워졌으므로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²⁵ 이런 의미에서 그 나라는 천국으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비록 여전히 현재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속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천국은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 하늘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이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계시고 그분을 부르는 곳이며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하고 계시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곳이다.”²⁶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면 분명 우리가 지금 이미 믿음으로 그분들의 호의뿐만 아니라 행복,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평화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²⁷

22 참고. Pauck, *Das Reich Gottes*, 5-19; Koch, *Studium Pietatis*, 50-54; MBDS 7, 98 n.43 (Von der waren Seelsorge. 1538).

23 MBOL 15, 47 (De regno Christi. 1550): “..., Deum semper adfore huic regi nostro ad dexteram, eiusque hostes omnino tandem confecturum, ...”

24 B. Ev. (1527) II, 144a (= B. Ev. (1536), 322-23): “..., simpliciter potest aeternum dici regnum Christi, praesertim cum[323] idem et patris sit.”

25 MBOL 15, 47 (De regno Christi. 1550): “..., regnum Christi constitutum esse iuramento Dei immutabili, ac proinde fore regnum aeternum.”

26 MBOL 15, 6 (De regno Christi. 1550): “Primum enim, cum regnum uocatur coelorum, clare exprimitur, illud non esse de hoc mundo, tametsi sit in nobis, qui in praesenti adhuc mundo uersamur [Ioan. 17, 11; 18, 36]. De coelo enim, ubi patrem nostrum, uerum Deum et conditorem nostrum habemus et inuocamus, ubi rex noster Iesus Christus sedet ad dexteram patris, et *instaurat quae sunt in coelo et in terra omnia*, Ephes. 1 [10], ...”

27 B. Eph. (1527), 22b: “..., si enim Deus pater, & IESUS Christus, qui iuxta nomen suum seruator & beator est suorum, Dominus noster existit, certi sumus, ut beneuolentiae eorum, ita & solide felicitatis, quae pax illa Dei & Christi est,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버지께 자신의 나라를 이양하실 때 만물은 신성으로 충만할 것이다.²⁸ 이런 점에서 아들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로 불린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그 나라를 이양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즉 마지막 대적인 죽음이 소멸될 때 그리스도의 나라의 끝이 올 것이며 그 때 증보직과 중재직이 끝나게 될 것이다.”²⁹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둘 다 “구원하는 나라”(regnum saluificum)로써 동일하다.³⁰ 하나님 나라 밖에서는 구원도 선행도 없다.³¹ 하늘 나라는 한 몸으로서의 우주적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상호간의 친밀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³²

부씨가 교회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regnum Christi et Dei)로 정의하는 이 사실로부터 그의 종말론적 교회론이 유추될 수 있다. 나라들과 권세들을 소멸하시는 유일한 소멸자이시고 모든 자들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외적인 나라와 자유로운 공화국 관리를 맡기셨을 때 그들 역시 진정으로 모든 정치적 권력과 모든 외적인 권세를 그분께 맡기는 것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순수하고 참된 종교가 그들에게 번성하고 항상 전진하며 어디서나 가능한 풍성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³³ 우리는 복음과 성령을 통해 그 나라에 함께 부름을 받고 영원한

nos compotes & iam per fidem esse, ...”

28 B. Eph. (1527), 74aver: “Tandem autem tradet hic noster, regnum Deo & patri, tum plena erunt diuinitate omnia.”

29 B. Ev. (1527) II, 143b (= B. Ev. (1536), 322): “Regnum patris uocat, quia tum Christus Deo & patri, regnum tradet, ut sit ipse omnia in omnibus. Finis nanque regni Christi erit, cum mediandi, & intercedendi finis, aderit, quando extinctus ultimus hostis erat [erit (1536)], mors, de quibus 1. Cor. 15.”

30 MBOL 15, 44 (De regno Christi. 1550): “..., idem esse Dei et Christi regnum, ...”

31 B. Ps., 25: “..., Aduenias regnum tuum: extra quod nulla salus, nihilque boni est.”

32 MBOL 2, 71 (Ioh.): “..., voluit [God] arctissimam vitae inter suos societatem esse ut *alii aliorum membra*, universi ecclesiam velut *corpus unum* constituerent. Hanc *regnum coelorum* in evangelicis Literis vocavit, ...”

33 MBOL 15, 296 (De regno Christi. 1550): “..., si unicus regnorum potestatumque

생명으로 인도된다.³⁴

IV. 두 나라: 교회와 정부

“뮌스터의 영과 가르침”(Münsterische Geist und Lehre)과는 달리 부씨는 “그리스도의 나라”(Reich Christi) 대신에 일시적인 나라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³⁵ 처음부터 부씨는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교회와 세상 나라로서 정부 사이의 기능적인 차이를 지적한다.³⁶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기독교의 머리이시며 다른 누구도 아니다. 물리적으로 우리는 세상 정부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께만 속해 있다.”³⁷ 국가와 교회는 병존한다.³⁸

distributor et conseruator omnium, rex Christus, dederit eiusmodi suis populis etiam externum regnum liberamque reipublicae administrationem, ..., omnem sane et politicam potestatem cunctasque externas opes conferent eo, ut eius regnum puraque et solida eius religio apud se uigeat, semper prouehatur et quam plenissime ubique obtineat.”

34 MBOL 15, 6 (De regno Christi. 1550): “... , et in regnum hoc per Euangelium et Spiritum sanctum conuocamur, et ad uitam aeternam regimur.”

35 MBDS 17, 141 (Ein summarischer vergriff. 1548).

36 함만(Hammann)에 따르면 부씨의 이런 입장은 루터와 일치한다. 두 나라 이론과 관련하여 그는 부씨의 신학적 독립성이 루터의 “긴장”(intertensio) 관계를 츠빙글리(Zwingli)의 “협력”(cooperatio) 관계 사이의 “중도”(via media)를 취한 것에 있다고 본다. 참고. Hammann, *Entre la secte et la cité*, 310.

37 MBDS 2, 151 (Handel mit Cunrat Treger. 1523): “Dann Christus ist das haubt der christenheit und nyemant anders. Im leiplichen haben wir die weltliche oberkeit in geistlichen ist Christus der herr, des seid wir auch allein.” 부씨의 이러한 표현은 “교회와 정부”(ecclesia et magistratus)의 관계를 “영혼과 육체”(animus et corpus)에 비유하는 츠빙글리의 이원론적 관계설정과는 다른 것이다. 참고. Gottfried W. Locher, *Zwingli's Thought: New Perspectives* (Leiden: E.J. Brill, 1981), 210. n.307.

38 Pauck, *Das Reich Gottes*, 55. 츠빙글리와는 달리 부씨는 교회를 국가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교회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츠빙글리의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Z 14, 424 (Jeremia-Erklärungen. 1531): “... Christianum hominem nihil aliud esse quam fidelem ac bonum civem, urbem Christianam nihil quam ecclesiam Christianam

지상 정부의 직분은 외적인 일들을 위해 선한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여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고 처벌을 통해 불경건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섬김이 온 교회 위에 세워진 것은 공공의 평화와 권위를 유지함으로써 교회의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³⁹ 이런 점에서 지상 정부의 의무는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⁴⁰ “그러나 비록 공동체를 책임져야 할 세상 정부의 섬김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설교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교회를 다스려야 하고 그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진하는 일을 도와야

esse.”; Brigitte Brockelmann, *Das Corpus Christianum bei Zwingli* (Breslau: Priebatschs Buchhandlung, 1938), 32ff.; Alfred Farner, *Die Lehre von Kirche und Staat bei Zwingli* (Tübingen: J.C.B. Mohr, 1930), 3-9; Bernd Moeller, *Reichsstadt und Reformation*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87), 35f.; Locher, *Zwingli's Thought*, 228f.; Willem van 't Spijker, “De ambten bij Zwingli,” in W. Balke e.a., *Zwingli in vierderlei perspectief* (Utrecht: B.V. Uitgeverij “de Banier”, 1984), 66; Willem van 't Spijker, “Zwingli's staatskerk,” in idem e.a., ed., *De kerk. Wezen, weg en werk van de kerk naar reformatorische opvatting* (Kampen: Uitgeverij de Groot Goudriaan, 1990), 122; W.P. Stepnens, *The Theology of Huldrych Zwingli* (Oxford: Clarendon Press, 1986), 282와 286.

- 39** MBDS 1, 55 (Das ym selbs. 1523): “Der nechst noch der geistlichen standt ist der standt weltlicher oberkeit, welcher ampt, ..., sonder stot darin, das in usserlichem gut ordnung und friden gehalten werd, die frummen beschutzet, die unfrummen von beleydigung der frummen durch straff abgehalten, yedoch so ist ir dyenst uff die gantz gemeyn gericht, deren wolfart zu schaffen mit erhaltung gemeynes fridens und rechtens.”
- 40** MBDS 1, 144 (Summary. 1523): Koch, *Studium Pietatis*, 155. 그리스도인의 삶과 부שר의 국가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시민들의 영혼구원을 위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Pauck, *Das Reich Gottes*, passim. 특히 64와 199. 루터에게 있어서 세상 정부의 사역이 가지는 영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LW 1, 369와 373 (= WA 6, 410과 413. An den christlichen Adel. 1520): “... wie wol sie [= weltlich hirschafft] ein leylich werck hat doch geystlichs stands ist ...” 그리고 “.../ sonderlich die weyl sie [= de keizers] nu auch mitschristen sein / mitpriester / mitgeystlich / mitmechtig / in allen dingen / vnd sol yhre ampt vnd werck das sie von got haben vbir yderman / lassen frey gehen / wo es not vnd nutz ist zugehen.” 루터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와 정부의 공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직자들에게 주신 것과 같이 동일한 권세를 세상 정부에도 주셔서 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다.

한다.

만일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권력 밖에 있지 않고 모든 곳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규정된 것이라면 분명히 뒤따라 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정부의 봉사는 사람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들 위에 권력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자라가고 그분은 모든 통치자들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되고 찬양되는 것이다.”⁴¹

그러므로 세상 정부는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고위의 적극적인 기능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공화국의 고유한 일”(opus proprium reipublicae)인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안녕이란 특별한 일을 위해 공동체가 세운 몇몇 사람들의 사역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세상 정부의 직무는, 신실하게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성직자들의 직무 다음으로 가장 가치 있다.⁴² “세상 통치자의 직무”(ampt weltlicher regierer) 역시 백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다.⁴³

41 MBDS 1, 55-56 (Das ym selbs. 1523): “Wiewol aber weltlicher oberkeit dyenst, die sye der gemeyn schuldig ist, nit in dem stot, das sye das gottlich wort und gesatz predigen zu uffgang gottlichs worts helffen. Dann so kein gewalt ist on von gott und der gewalt, der allenthalben ist, ist von gott geordnet, so folget ye gewißlich, das er nach gottlicher ordnung und willen gebraucht werden soll. also das ir dyenst endtlich die wolfart deren, über die der gewalt ist, also schaffe, das dadurch das lob gottes uffgang, und er der [Herr] aller[56] herrschenden und künig aller künig erkant und geprisen werd.”

42 MBDS 1, 55 (Das ym selbs. 1523): “das dann gar vil mer ist dann in sonderlichen handeln sonderlichen menschen von der gemeyn zu dyenst sein. Deßhalb noch dem ampt der geistlichen, das do ist, die gemeyn treülich mit dem gotswort versehen, ist das ampt weltlicher oberkeit das würdigist.” 여기서 부씨는 “모든 시민들의 한 몸”(unum corpus civium omnium)을 “이 몸의 한 시민”(unus civis eius)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입장은 중세 후기 독일 서쪽과 남쪽의 자유 도시들의 사회적 제도로서의 “기독교의 몸”(corpus christianum)이라는 개념에 상응한다. 뮐러(Moeller)는 이 도시 사회 제도를 “집합적 개인”(Kollektivindividuum)과 “종교적 공동체”(sakrale Gemeinschaft)로 정의한다. 참고. Moeller, *Reichsstadt und Reformation*, 11f.

하지만 이기적인 정부는 공동체 전체를 영광스럽고 기독교적인 다스림으로 섬기는 일을 방해한다.⁴⁴ 이런 국가의 목표는 “종교적이고 도덕적”(ein religiös-sittlicher)이다.⁴⁵ 그렇게 하기 위해 정부는 “신성한 권위”(sacrosancta autoritas)와 “신성한 공권력”(potestas publica sacrosancta)을 갖는다.⁴⁶ 즉 세상 정부도 역시 신적인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처는 지상의 정부가 참으로 기독교적이어야, 즉 “기독교 공화국”(Respublica Christiana)이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⁴⁷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모든 것에 앞서지 않는 곳에는 평화가 평화가 아니며 정의가 정의가 아니며 유익해야만 했던 것이 손해를 끼칠 뿐이기 때문이다.”⁴⁸

부처에게 있어서 교회와 국가는 서로 구분될 수는 있으나 분리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고 경건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도록 돌보는 것이기 때문이다.⁴⁹

43 MBDS 1, 55 (Das ym selbs. 1523): “Und [das ampt weltlicher oberkeit] erfordert auch leüt, die sich selb gar verleücknen und mitnichten das ir suchen.”

44 MBDS 1, 55 (Das ym selbs. 1523): “... vil mer hindert [eygen gesuch] einer ganzen gemeyn, in erbarem und christlichem regiment zu dyenen.”

45 Pauck, *Das Reich Gottes*, 21; Marijn de Kroon, “De christelijke overheid in de schriftuitleg van Martin Bucer en Johannes Calvijn,” in W. Balke e.a., ed., *Wegen en gestalten in het gereformeerd protestantisme* (Amsterdam: Ton Bolland, 1976), 69f.

46 MBOL 1, 112 (Epistola Apologetica. 1530); B. Rom., 558f.; MBDS 17, 141 (Ein summarischer vergriff. 1548): “Lehren wir von der Oberkeit nach dem wort des Herren, das ir ampt ein heilig Gottlich ampt ist, ...” 참고. Marijn de Kroon, “Bucer und Calvin. Das Obrigkeitsverständnis beider Reformatoren nach ihrer Auslegung von Röm 13,” in W.H. Neuser, ed., *Calvinus Servus Christi* (Budapest: Presseabteilung des Ráday-Kollegiums, 1988), 214.

47 코흐(Koch)는 이 정부를 “기독교 도성”(Civitas Christiana)이라 부른다. 참고. Koch, *Studium Pietatis*, 154ff.

48 MBDS 1, 56 (Das ym selbs. 1523): “Dann wo nit gott erkant und sein gehorsam vor allem uffgericht würt, ist der frid kein frid, das recht kein recht und bring Schaden alles, das do nutzlich sein solt.”

49 MBDS 17, 141 (Ein summarischer vergriff. 1548): “..., und welche [=정부의 직무] das verwalten, das die vor allem helfen sollen, das man Gott recht diene und

그 둘 사이에는 상호간의 섬김이 있다.⁵⁰ 왜냐하면 이 두 질서는 공공의 유익을 증진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이웃의 유익을 극대화하고 이웃의 피해를 극소화하는 가장 기독교적인 질서와 직업이다.⁵¹

교회 없이는 참된 국가가 존재할 수 없고 국가 없이는 결코 질서 정연한 교회가 있을 수 없다.⁵² 이 점에서 부씨의 두 나라 이론은 어느 정도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두 도성”(duae civitates)⁵³ 사상과 구별되고 또한 루터의 “두 나라”(dua regna)⁵⁴ 개념과도 구별된다.⁵⁵ 왜냐하면 아우구스

ein Gottselig erbar leben fure.”

50 Koch, *Studium Pietatis*, 166. 이 경우에 부씨의 정치론은 분명하게 중세의 두 가지 주요 국가 개념인 “교회의 국가 지배 체제”(Kirchenstaatshoheit)와 “국가의 교회 지배 체제”(Staatskirchenhoheit)와 구분되어야 하는데, 두 체제 모두 교회와 국가의 혼합성을 대표한다. 중세의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E. Friedberg, *Lehrbuch des katholischen und evangelischen Kirchenrechts*, 52-62; W.M. Plöchl, *Geschichte des Kirchenrechts II*, 31-36.

51 MBDS 1, 58 (Das ym selbs. 1523): “Noch disen zweyen gemeynen standen zu fürderung gemeynes nutz von gott eingesetzt, ... seind die christlichsten stand und handtyerungen, die den nechsten am meysten nutz und am wenigsten beschwarde zufuren.”

52 Pauck, *Das Reich Gottes*, 55.

53 CCL 48, 453 (= MPL 41, 437. De civitate Dei 15-1): “Arbitror tamen satis nos iam fecisse magnis et difficillimis quaestionibus de initio uel mundi uel animae uel ipsius generis humani, quod in duo genera distribuimus, unum eorum, qui secundum hominem, alterum eorum, qui secundum Deum uiuunt; quas etiam mystice appellamus ciuitates duas, hoc est duas societates hominum, quarum est una quae praedestinata est in aeternum regnare cum Deo, altera aeternum supplicium subire cum diabolo.”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X.P. Duijnste, *St. Aurelius Augustinus over kerk en staat* (Tilburg: Uitgave van het Nederlandsche Boekhuis, 1930), 236-352; A. Sizoo, *Augustinus over den staat* (Kampen: J.H. Kok, 1947), 10f.와 18ff.; J. van Oort, *Jeruzalem en Babylon* (s-Gravenhage: Uitgeverij Boekencentrum, 1986), 97-119.

54 LW 2, 364-66 (= WA 11, 249-51. Von weltlicher Obrigkeit. 1523): “.../ Hie müssen wyr Adams kinder vnd alle menschen teylen ynn zwey teyll / die ersten zum reych Gottis / die andern zum reych der welt. Die zum reych Gottis gehören / das sind alle recht glewbigen ynn Christo vnnd vnter Christo / Denn Christus ist der konig vnnd herr ym reych Gottis / ... [366] [251] ... Zum reych der welt oder vnter dz gesetz gehen alle / die nicht Christen sind / Denn syntemal wenig glewben vnd das weniger teyl sich hellt nach Christlicher art / das es

티누스와 루터와는 달리⁵⁶ 부씨에게 있어서 두 국가 이론은 결코 변증법적
평행 현상이나 이원론으로 귀결되지 않기 때문이다.⁵⁷

비록 루터와 부씨 모두 재세레파와는 달리 세상 정부의 필요와 정당성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마치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두 나라의 차이점과
각각의 독립성에 관심을 기울인 반면에⁵⁸ 부씨는 두 나라 사이의 집합적

nicht widerstrebe dem vbel / Ya das es nicht selb vbel thue / hat Gott den
selben / ausser dem Christlichen stand vnnd Gottis reych / eyn ander regiment
verschafft / vnnd sie vnter das schwerd geworffen // Darumb hatt Gott
die zwey regiment verordnet / das geystliche / wilchs Christen vnnd frum leutt
macht durch den heyiligen geyst vnter Christo / vnnd das weltlichs / wilchs
den vnchristen vnd boßen weret / das sie eußerlich müssen frid hallten vnd
still seyn on yhren danck.”

55 참고. Koch, *Studium Pietatis*, 153f.

56 루터의 두 나라 이론과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나라 이론에 관한 비교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E. Kinder, “Gottesreich und Weltreich bei Augustin und bei Luther,” in
H.-H. Schrey, ed., *Reich Gottes und Welt. Die Lehre Luthers von den zwei Reichen*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9), 40-69; H. Bornkamm,
“Luthers Lehre von den zwei Reichen im Zusammenhang seiner Theologie,”
in H.-H. Schrey, ed., *Reich Gottes und Welt*, 179-88. 두 나라 이론과 관련하여
보른캄(Bornkamm)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제가 루터의 “삼차원적”(dreidimensional)
개념과 대조되는 “거의 순수하게 일차원적”(fast rein eindimensional)이라는 자신의 판단
을 근거로 루터와 아우구스티누스를 구분한다.

57 비록 루터의 “두 나라” 개념에서 볼 수 있는 이원론이 마니교(Mani)나 재세레파의 이원론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 할지라도 루터가 자신의 두 나라 이론에서 세운 날카로운 평행구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평행구조는 지상 정부에 의해 통치되는
세상 역사에 대한 루터의 부정적이고 비관주의적인 견해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참고. Karl
Müller, *Kirche, Gemeinde und Obrichkeit nach Luther* (Tübingen: Verlag von
J.C.B. Mohr, 1910), 18f.; Paul Althaus, *Die Ethik Martin Luthers*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65), 136. 알트하우스(Althaus)는 두 가지
통치에 대한 루터의 교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하는 “성경적 이원론”(dem
biblischen Dualismus)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그의 책 57쪽 참조.

58 LW 2, 367 (= WA 11, 252. Von weltlicher Obrigkeit. 1523): “Darumb muß man
dise beyde regiment mit vleyß scheyden vnd beydes bleyben lassen / Eins das
frum macht / Das ander das eußerlich frid schaffe vnd bosen wercken weret
/ keyns ist on das ander gnug ynn der welt / ...” 루터가 두 나라 사이의 구분을
강조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H. Diem, “Luthers Lehre von den zwei Reichen
untersucht von seinem Verständnis der Bergpredigt,” in J. Haun, ed., *Zur
Zwei-Reiche-Lehre Luthers* (München: Kaiser, 1973), 107-31. 디엠(Diem)의 판단에

관계를 강조한다.⁵⁹ 교회를 영적이고 내적인 영역으로 본 루터는 그것을 육적이고 외적인 영역의 정부와 날카롭게 구분하려고 했다.⁶⁰ 이와 반대로 부씨는 교회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협의의 통치와 광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그 둘을 통합하려고 했다.⁶¹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스스로를 세상 나라와 권세에 예측시킬 때 참된 세상 나라는 모두 각기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스스로를 종속시킨다.⁶²

비텐베르크의 개혁자와⁶³ 스트라스부르의 개혁자는⁶⁴ 모든 지상 권세의

따르면 로마 가톨릭의 혼합이론이나 재세례파 혹은 영성주의자들의 혼합이론이 루터가 두 나라를 “분리”(Aufteilung)하게 된 원인이다.

- 59 참고. F. Wendel, *L'Église de Strasbourg, sa constitution et son organisation 1532-1534*. Études d'histoire et de philosophie religieuses 38 (Strasbourg: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42), 165ff.; Moeller, *Reichsstadt und Reformation*, 40; Koch, *Studium Pietatis*, 153; Hammann, *Entre secte et la cité*, 320ff. Bucers beschouwing van de overheid als medewerker is familair met die van Zwingli. 참조. Moeller, *Reichsstadt und Reformation*, 34-49. 교회와 정부에 관한 츠빙글리의 자세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H. Bavinck, *De Ethiek van Zwingli*, 122-71; Farner, *Die Lehre von Kirche und Staat bei Zwingli*, passim. 특히 85f.; Brockelmann, *Das Corpus Christianum bei Zwingli*, passim. 특히 56-61; Van 't Spijker, “De ambten bij Zwingli”, 65-68; idem, “Zwingli's staatskerk”, 121f.; Stephens, *The Theology of Huldrych Zwingli*, 282-309.
- 60 루터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나라만을 다스리신다. 참고. WA 11, 202 (Predigten. 1523): “Christus solum spirituale regnum habet, ideo non curat hoc [= regnum Caesaris] nec setzet ein, sed deus hats eingesetzt. Christus non curat tonitrum, sed deus.”; Althaus, *Die Ethik Martin Luthers*, 52. n.20. 루터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통치, 즉 세상 나라를 소유하심은 오직 종말론적인 미래 사건 일뿐이다. 그 때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regnum gloriae)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 안에서 다스리실 나라다. 이런 점에서 분명한 사실은 디엠(Diem)이 이미 지척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대한 기대 없이는 루터의 두 나라 이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 Diem, “Luthers Lehre von den zwei Reich”, 169f.
- 61 부씨의 정치 사상에서 이런 그리스도정치(Christocracy.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는 상대적으로 루터의 정치 사상에서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 참고. E. Wolf, *Peregrinatio II. Studien zur reformatorischen Theologie, zum Kirchenrecht und zur Sozialethik*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65), 209.
- 62 MBOL 15, 296 (De regno Christi. 1550): “Porro, sicut se regnum Christi regnis et potestatibus subiicit mundi: sic contra omne uerum mundi regnum (regnum dico, non tyrannidem) subiicit se regno Christi, ...”

존재와 기능을 “사랑의 법”(lex charitatis)에서 발견한다. 하지만 두 개혁가 사이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 루터에게 황금률로서 사랑의 법은 창조질서에 근거한⁶⁵ 자연법의 내용을 의미하는 반면에,⁶⁶ 부씨는 이웃사랑의 기초 원리를 단지 창조질서뿐만 아니라 재창조질서에서 찾는다.⁶⁷ 부씨에게 창조의 목적은 재창조의 목적과 다르지 않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사랑이 바로 그것이다.⁶⁸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nach gotlicher bildtnuß) 지음 받은 인간은 “자신의 모든 행위 가운데 아무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이웃과 형제의 안녕만을 추구한다.”⁶⁹

63 LW 2, 391과 393 (= WA 11, 277과 279. Von weltlicher Obrigkeit. 1523): “Vnnd hyrynnen mustu nicht ansehen / das deyne / vnd wie du herre bleybst / sondern dein vntherthanen / den du schutz vnd hilff schuldig bist / auff das solch werck ynn der liebe gehe.” 그리고 “Synd sie aber beyde vnchristen / odder der eyne nicht will nach der liebe recht richten lassen / die magstu lassen eynd ander richter suchen vnnd yhm ansagenn / das sie widder Gott vnnd naturlich recht thun / ob sie gleych bey menschen recht die strenge scherffe erlangen. Denn die natur leret / wie die liebe thut / das ich thun soll / was ich myr wollt gethan haben.” 비교. WA 1, 502 (Decem praecepta. 1518): “Haec enim est lex et prophetiae, scilicet lex et prophetiae sola charitate implentur. ideo si est lex naturae, est naturae sanae et incorruptae, quae idem est cum charitate.”

64 MBDS 1, 55 (Das ym selbs. 1523): “..., (dann ye on die liebe, welche das ir nit sucht, kein handel christlich oder redlich sein kan) ...”

65 창조질서라는 용어는 루터 연구자들 사이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과는 달리 디엠은 루터가 이 용어를 모른다고 언급한다. 참고. Diem, “Luthers Lehre von den zwei Reichen”, 57f.

66 Johannes Heckel, *Lex charitatis. Eine juristische Untersuchung über das Recht in der Theologie Martin Luthers* (München: C.H. Beck'schen Verlagsbuchhandlung, 1953), 67; Althaus, *Die Ethik Martin Luthers*, 36f.와 40f.; Bornkamm, “Luthers Lehre von den zwei Reichen”, 172.

67 파우크(Pauk)가 강력하게 주장하기를, 이미 처음부터 부씨에게는 “기독교 복지국가”(christlichen Wohlfahrtsstaat)의 기초가 “자연법”(in dem Naturrecht)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율법”(in dem positiven Gesetz Gottes)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Pauk, *Das Reich Gottes*, 55.

68 MBDS 1, 59 (Das ym selbs. 1523).

69 MBDS 1, 51 (Das ym selbs. 1523): “..., das er in allen seinem thun nichts eygens, aber allein die wolfart seiner nechsten menschen und bruder suche zu der eer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와 계명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자신이 아닌 자신의 이웃을 위해 영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살고 섬겨야 하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 덕분이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⁷⁰ “자연법”(lex naturae)으로써 황금률은 그리스도 안에서 증생한 자들이 기독교적인 삶을 진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모습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모든 법의 “완성”(consummatio)인 참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성취되기 때문이다.⁷¹ 성령 안에서 모세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가 되는데, 그것은 보혜사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모세 율법의 제창자이신 영과 동일하시기 때문이다.⁷²

두 나라에 대한 부씨의 가르침에는 “사랑의 법”(lex charitatis) 즉 “사랑의 질서”(ordo dilectionis)라는 개념이⁷³ 정부의 물질적 통치와 교회의 영적 통치를 묶는 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사랑은 시민들의 생활을 다스리는 정부법의 원리다.⁷⁴ 따라서 기독교 정부는 기독교 사랑공동체여야만

gottes.”

70 MBDS 1, 59 (Das ym selbs. 1523): “Auß disem allen nun ists klar, das gottlichem geschopf, ordenung und gebott nach im selb niemant, aber yederman seinem nechsten umb gots willen leben und dyenen soll in geistlichem und leiplichem auß allen sein krefftten. die aber am fürnemsten so zu fürderung gemeynes nutz, es sey in geistlichem oder weltlichem berufft und gesetzt seind.”

71 MBDS 1, 59 (Das ym selbs. 1523); B. Ev. (1536), 194ff.

72 MBOL 1, 112 (Epistola Apologetica. 1530): “... Spiritus ... legis illius [= Mosel conditor.”; A. Molnár, “La correspondance”, 145 (Bucer aan Augusta. 1541): “Mais les institutions et les gouvernements des cités n’en sont pas moins l’œuvre de ce même esprit qui gouverne les institutions et les ministères ecclésiastiques.”

73 사랑의 법과 사랑의 질서에 관한 부씨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Koch, *Studium Pietatis*, 70-73.

74 Koch, *Studium Pietatis*, 184. 안타깝게도 파우크는 기독교 사랑에 대한 부씨의 폭넓은 개념을 보지 못했다. 그의 책, *Das Reich Gottes*, 49에서 공적 생활을 위해 부씨가 관심을 가진 것은 “평등의 원리”(das Prinzip der Billigkeit)이지 “온전한 기독교 사랑의 원리”(das der vollen christlichen Liebe)가 아니라는 파우크의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루터에게 있어서 정부의 “최고법”(prima lex)은 “이성”(ratio)이다. 참고. LW 2, 386 (= WA 11, 272. Von weltlicher Obrigkeit. 1523): “Darumb muß eyn furst das recht ia so fast ynn seyner hand haben als das schwerd / vnnd mitt eygener vernunfft messen wenn vnnd wo das recht der strenge nach zu brauchen odder zu lindern sey.

한다.⁷⁵ 하지만 그 사랑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관용주의로 곡해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사랑은 죄와 악마를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항상 왼손에 처벌의 맬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⁷⁶ 그러므로 “선한 지도자의 목적은 백성을 죄악에서 불러 내어 선한 곳으로 초대하는 것이요, 또한 어떤 불경건한 것도 공적으로 관용하지 않고 참된 예배로 초대하는 것이다.”⁷⁷ 이런 점에서 “정당한 처벌”(billiche straf)은 “순수한 사랑과 긍휼과 구원”(lauter liebe, barmhertzigkait und hay) 이외의 다른 무엇이 아니다.⁷⁸

V. 기독교 정부

정부사역의 외적 목표는 경건한 하나님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는 것이다.⁷⁹ 이 세상의 왕들이 자신들의 백성인

Also das alltzeyt vber alles recht regire vnnd das vberst recht vnnd meyster alles rechten bleybe die vernunfft.”

⁷⁵ Pauck, *Das Reich Gottes*, 49.

⁷⁶ MBOL 15, 105 (De regno Christi. 1550): “At, quia et gladii potestate, ut cunctis, quas a Domino acceperint, uiribus, sancti principes regnum Christi adserere debent ac propagare, et istud est in eorum officio, non tolerare quemquam sanae Euangelii doctrinae palam aduersari et conuitiari.” 부씨의 정부 개념에서 종교적 관용의 한계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Marijn de Kroon, *Martin Bucers Obrigkeitsverständnis. Evangelisches Ethos und politisches Engagemen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84), 8-23; idem, *Martin Bucer en Johannes Calvijn. Reformatorische perspectieven Teksten en inleiding* (Zoetermeer: Meinema, 1991), 150-66.

⁷⁷ B. Iud., 479: “Sed boni Principis finis est, vt populum auocet a malo, & inuitet ad bonum, ac neminem aperte impium toleret, inuitetque ad religionem veram: ...” 참조. MBOL 1, 111-17 (Epistola Apologetica. 1530); B. Ev. (1536), 65, 137과 428f.

⁷⁸ MBDS 6/2, 127 (Dialogi. 1535).

⁷⁹ MBDS 7, passim. 특히, 147ff., 156, 158, 188ff., 204 등등. (Von der waren Seelsorge. 1538); MBOL 15, 56 (De regno Christi. 1550). 참고. De Kroon, *Bucers Obrigkeitsverständnis*, 149f.

양떼들을 다스리는 모든 권력을 “하나님으로부터”(a Deo) 받은 것은 “그들의 믿음과 구원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ad fidei atque salutis eorum aedificationem, non ad destructionem)⁸⁰ 부씨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신정을 기독교 통치형태의 모델로 간주한다.⁸¹ 시장이 최고 수장인 공화국이 일종의 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은 서로를 지체로 간주되는데,⁸² 이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와 세상 나라인 정부 사이의 유사성이 발생한다.⁸³ “평안하게”(mit hey!) 다스리고 “폭군이 아니”(nit ein tyrann) 될 자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선택 받아야만 하는데, 즉 그는 통치하기 위해, 그리고 통치자로 부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르게 신앙적”(recht glaubig)이어야 한다.⁸⁴ 왜냐하면 최선의 그리스도인보다 더 공정하게 그런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⁸⁵

⁸⁰ MBOL 15, 7 (De regno Christi. 1550). 참고. W. Trillhaas, “Regnum Christi”, 62.

⁸¹ MBDS 1, 56f. (Das ym selbs. 1523); MBDS 7, 147과 151 (Von der waren Seelsorge. 1538); MBOL 15, 18과 99f. (De regno Christi. 1550). 참고. Pauck, *Das Reich Gottes*, 62f. 와 66f.; Hammann, *Entre la secte et la cité*, 312.

⁸² B. Ev. (1536), 142: “..., quandoquidem Respublica uelut corpus est, cuius caput existit princeps, uel magistratus, ciues omnes membra inuicem habentur.”; Pauck, *Das Reich Gottes*, 61. 이것을 근거로 파우크는 정부가 재건하는 사회의 실천적 성격이 교회가 재건하는 사회의 성격과 동일한 것이라고 서둘러 결론 내린다. 하지만 부씨는 어디에서도 교회와 정부를 한 몸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여기서 “몸”(corpus)라는 용어는 두 기관인 정부와 교회를 서로 비교하는 적합한 재료로서 기능할 뿐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파우크의 주장은 옳지 않다. Pauck, *Das Reich Gottes*, 65: “Beide [= Staat und Kirch] stellen nebengeordnete Funktionen eines Körpers dar, ...”

⁸³ MBOL 15, 6-14 (De regno Christi. 1551). 여기서 부씨는 7가지 일치하는 공통점을 지적한다. 즉 모든 사람 위에서 다스리는 한 명의 우두머리(unus administrat omnia), 백성을 경건하고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기(cunctos ciues suos pios et bonos efficiant), 선인들 사이에 숨어 있는 악인들에 대해 인내하기와 동시에 불경건한 자들의 공적 잘못에 대해 처벌하기(palam flagitios e ciuitatibus profligandi), 외적인 수단들을 통해 백성을 모으고 다스리기(ciues recipere in regnum sacramentis externis), 백성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피기(prouidere ne quis egeat), 적과 같은 악한 자들과 영혼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싸우기(perpetuo contra hostes pugnare), 두 나라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섬기기(mutua subiectio et subministratio) 등이다.

⁸⁴ MBDS 1, 56 (Das ym selbs. 1523). 참고. B. Ev. (1536), 141f.

⁸⁵ MBDS 17, 141 (Ein summarischer vergriff. 1548): “Lehren wir von der Oberkeit

경건한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곳에서만 참된 신앙이 공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잘 살 수 있다.⁸⁶ 통치자들은 백성이 자신들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인 줄 알고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다스려야만 한다.⁸⁷ “하나님의 질서와 규정”(gotlich ordnung und satzung)이 인간의 모든 규정과 규칙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기독교 “시장”(magistrat)과 “정부”(oberkeit)의 모든 의무는 “하나님의 법칙에”(auß gottlichen gesatz)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⁸⁸ 부씨에게 국가통치의 시금석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다르지 않다.⁸⁹ 그러므로 성경은 가장 중요한, 최고의 법규로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안에서도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⁹⁰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와 안녕”(uns aller nutz und wolfart)은 “영적인 영역과 세상적인 영역 모두

nach dem wort des Herren, das ir ampt ein heilig Gottlich ampt is, das niemand billicher tragen solle dann die allerbesten Christen, ...” 이것을 근거로 부씨는 재세례파의 정부 개념을 유해한 날조로 보는데,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정부의 직책을 맡을 수 없다는 그들의 주장 때문이다. 참고. MBOL 2, 306 (Ioh.): “... quam perniciosum sit commentum Catapaptistarum qui negant Christianum posse fungi magistratu.”

86 B. Iud., 479: “...: ergo non potest non sub piis Principibus publice vigere vera religio, & bene viui.” “경건한 정부지도자”(pius magistratus)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B. Ev. (1536), 429f.; MBOL 15, 18f.와 106 (De regno Christi. 1550); Koch, *Studium Pietatis*, 167ff.

87 MBDS 1, 56 (Das ym selbs. 1523): “Der dann wie er sich erkennt ein underhyrten gesetzt sein nit über sein eygen, sonder über die schafflin gottes, also gedenckt er auch dieselbigen nit noch seim gutduncken, sonder nach dem gesatz gottes, des sye seind, zu regieren.” 루터는 군주란 자신을 백성 아래 있는 자로 세울 수 있는 자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참고. LW 2, 387 (= WA 11, 273): “Vnd nicht also dencke [eyn furst] / land vnd leutt sind meyn / ich wills machen wie myrs gefellet / sondernn also. Ich byn des lands vnd der leutt / ich sols machen / wie es yhn nutz vnd gut ist.” 카르다운스(Cardauns)에 따르면 영주 위에 백성을 세운다는 개념은 중세적 유산이다. 참조. L. Cardauns, *Die Lehre vom Widerstandsrecht des Volks gegen die rechtmäßige Obrigkeit im Luthertum und im Calvinismus des 16. Jahrhunderts*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32), 22.

88 MBDS 1, 57 (Das ym selbs. 1523).

89 MBDS 2, 158 (Handel mit Cunrat Treger. 1523).

90 참조. Pauck, *Das Reich Gottes*, 64. 자신의 책 『경건에 대한 열심』(*Studium Pietatis*), 160쪽에서 코흐(Koch)는 부씨의 정부 통치형태를 “성경적 정치”로 정의하고 싶어 한다.

에”(in beydem geistlichen und weltlichem)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⁹¹

모든 기독교 정부가 하나님의 성경을 굳게 붙잡는다면 무엇이 선한 생각이고 아닌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⁹²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군주들”(weltlichen fürstherren)은 “목자”(hyrten)와 “아버지”(vatter), 즉 “하나님의 대리자”(statthalter gottes)가 되어야 한다.⁹³ 하나님께서는 세상 통치자들을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세우셨고, 착취자가 아닌 목자로 세우셨으며 폭군이 아닌 아버지로 세우셨기 때문이다.⁹⁴ 주님께서 “통치자들과 권력자들”(die obren und gewaltigen)을 지상에서 “자기 양떼를 통치하는 목자로”(zu den Obristen hyrten seiner schafflin)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모든 능력과 힘을 사용하여 주님의 잃어버린 양과 방황하는 양들을 찾고 그들을 주님께로 모아 들여야만 하는 것이다.⁹⁵

그와 같은 정부 통치자의 직무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일”(das werk Gottes und Christi)이라는 점에서 부씨는 정부 인사들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그들 위에 있는 신들과 그리스도들”이라 부른다.⁹⁶

91 MBDS 1, 58 (Das ym selbs. 1523).

92 MBDS 1, 200 (Grund und ursach. 1524): “..., ein jede Christliche oberkeit würt wol erkennen mogen, so sye die schrifft gottes hat, ob ir ein meinung gemeß oder nit sey.” 참조. Hammann, *Entre la secte et la cité*, 313.

93 MBDS 1, 58 (Das ym selbs. 1523). 참조. MBDS 6/2, 29 (Vom Ampt der oberkeit. 1535): “... sy [= weltlich obren] God selb nennet Gotter, ordliche und gewaltigen, die er wille vatter und hyrten sein seines volcks und seiner schafflin, welche er von der welt erwolet hatt.”; MBOL 15, 18 (De regno Christi. 1550): “... pastores populi ...”

94 B. Ps., 서문 2a: “His iam testatur vbique in arcanis Literis suis Deus se Principes non dominos, sed ministros: non exactores, sed pastores: non tyrannes qui eis pro sua libidine imperitent, sed patres qui seipos pro illorum salute impendant, praeficere: ...” 참조. B. Ev. (1536), 413: “... quod omnino pius magistratus seruiat, non dominantur.”

95 MBDS 7, 147 (Von der waren Seelsorge. 1538).

96 MBDS 7, 147 (Von der waren Seelsorge. 1538): “Die obren sind Gotter und Christi vor und ob allen anderen menschen, ...”. 참조. B. Ps., 331; MBOL 2, 350과 365 (Ioh.), “... vicarii Dei ... Hactenus igitur divinitatis participes sunt et *dii atque*

“시의원들은 교회에 신실한 일꾼들을 제공해야 하고 학교들과 어린이 교육 기관을 감독해야 하며 누구도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건전한 교리 및 그리스도와의 교제로부터 빼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⁹⁷ 가끔 정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악한 교회 직분자들을 직위 해제할 수 있다.⁹⁸ 하지만 교회 일꾼들이 자신들의 일을 잘 수행할 경우, 모든 경건한 왕들과 지도자들은 “그 일꾼들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음성”(vox Christi a ministris)을 들어야 한다.⁹⁹ 이런 방법으로 경건한 군주들과 시의원들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에 종사하여 “기독교를 진정으로 확대하고 개선하도록”(die Christenheit warlich zu erweiteren und zu besseren) 해야 한다.¹⁰⁰

부씨에 따르면 “모든 참된 왕들”(Omnes veri reges)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거룩한 열심”(sancti studii in Christi regnum)을 가진 자들이다.¹⁰¹ 따라서 세상의 통치자들은 다양한 종파와 이단들을 처벌할 수 있고 처벌해야 한다.¹⁰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기독교 정부의 치리는

fili Altissimi [Ps. 81, 6] iure vocantur.” 그리고 “... *dii ipsi filiique excelsi* ...”; B. Ev. (1536), 428: “Dii in scriptura Dei principes & magistratus uocantur, ...”

⁹⁷ MBDS 7, 147 난외주 (Von der waren Seelsorge. 1538): “Die Obren sollen den Kirchen getrewe Diener bestellen, die schulen und zucht der juget versehen, Niemand gestatten, sich selb oder andere von gesunder lere und der gemeinschafft Christi abzuziehen.” 참조. MBOL 15, 127 (De regno Christi. 1551).

⁹⁸ MBDS 7, 236 (Von der waren Seelsorge. 1538); MBOL 15, 16 (De regno Christi. 1551): “... pii reges mundi sua interdum autoritate, praesertim cum uitiatum sacerdotium est et deprauatae Ecclesiae, sacerdotes Domini constituunt et restituunt, ...”

⁹⁹ MBOL 15, 16 (De regno Christi. 1551).

¹⁰⁰ MBDS 7, 153 (Von der waren Seelsorge. 1538).

¹⁰¹ MBOL 15, 17 (De regno Christi. 1551).

¹⁰² MBDS 7, 148ff. (Von der waren Seelsorge. 1538). 부씨와 달리 루터는 이단이란 영적인 문제이므로 세상 정부에 의해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참조. LW 2, 383 (= WA 11, 268. Von weltlicher Obrigkeit. 1523): “Ketzerey ist eyn geystlich ding / das kan man mitt keynem eyßen hawen / mitt keynem fewr verbrennen / mitt keynem wasser ertrencken. Es ist aber alleyn das Gottes wortt da / das thutts ...”

교회 치리를 대신하지 않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공동체의 영적 치리”를 정부 치리와 나란히 두도록 규정하셨기 때문이다.¹⁰³ 정부들은 타고난 “불경건”(impietas)과 “불의”(iniustitia) 속에 있는 인간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경건”(pietas)과 “의”(iustitia)로 교육할 수 없다.¹⁰⁴

“참된 사랑과 관용의 시혜자”(verae charitatis atque patientiae largitor)이신 우리의 왕만이 내적이고 영적인 문제들을 자신의 “말씀과 영”(verbum et Spiritus)으로 푸실 수 있다.¹⁰⁵ 여기서 부씨는 시민적 치리와 교회적 치리를 구분하는 것이 분명하다.¹⁰⁶ “외적 처벌”(die eussere straff)인 시민적 치리와 달리,¹⁰⁷ 교회적 치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신의 교회들에게 주신 묶고 푸는 열쇠권능으로 실행된다.¹⁰⁸ 이 “교회 치리와 처벌”(kirchenzucht und straf)은 항상 경건한 정부의 치리와 처벌 위나 아래가 아니라, 나란히 서 있다.¹⁰⁹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는 둘 다 필수적인데, 이것은 왕이신 자신이 영적 겸인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정부의 외적 검토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치명적인 범죄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의해, 또한 동시에 경건한 왕과 영주의 엄한 법으로서의 종교적 경고를 통해서도 제거될 필요가 있다.¹¹⁰

교회의 치리와 정부의 치리라는 수단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¹⁰³ MBDS 7, 190 (Von der waren Seelsorge. 1538).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부씨의 “기독교 공동체”(Christlichen Gemeinschaften) 운동이 교회 치리의 독립성을 강조했던 그의 강력한 주장의 논리적 결과였다고 이해한다. 부씨의 의도는 결코 교회와 정부를 분리시키려는 것도 아니며 시정부의 교회를 둘로 갈라놓으려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부씨는 두 “집단”(corpora)인 교회와 정부를 기능적으로 구분하려고 했을 뿐이다.

¹⁰⁴ MBOL 15, 8 (De regno Christi. 1551).

¹⁰⁵ MBOL 15, 11 (De regno Christi. 1551). 참조. De Kroon, “De christelijke overheid”, 70.

¹⁰⁶ MBDS 7, 190-206 (Von der waren Seelsorge. 1538).

¹⁰⁷ MBDS 7, 149 kantt. (Von der waren Seelsorge. 1538).

¹⁰⁸ MBDS 7, 190 (Von der waren Seelsorge. 1538).

¹⁰⁹ MBDS 7, 191 과 206 (Von der waren Seelsorge. 1538). 부씨에 따르면 교회와 정부는 서로에게 순종해야 한다. 참고. MBOL 15, 14-17 (De regno Christi. 1551).

¹¹⁰ MBOL 15, 117 (De regno Christi. 1551).

의 명에 아래,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다. 또한 교회 일꾼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파괴적인 불순종과 경멸을 대항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거짓되고 인간적인 독재를 대항할 것이다.¹¹¹ 부씨의 정치적 이상은 “참된 기독교 공화국”(vera respublica christiana)을 재건하는 것인데, 이런 공화국에서는 오직 최고의 기독교인만이 정부로서 다스리는 권리를 가질 것이다.¹¹²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정부가 하나님의 교회와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¹¹³ 특히 빈자를 돌보는 구제¹¹⁴와 결혼¹¹⁵, 그리고 교육은¹¹⁶ 그 두 기관의 협동 영역에 속한다. 부씨에게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역이기도 하다.¹¹⁷

VII. 정부에 대한 순종

111 MBDS 7, 238 (Von der waren Seelsorge. 1538): “Durch dise mittel würdt sich eyn jeder Christ vor der so verderblichen ungehorsame und verachtung Christi in seinen dienern under dem joch Christi und in seinem reich wol bewaren und erhalten.”

112 MBDS 7, 151 (Von der waren Seelsorge. 1538): “Nachdem dann die Christen die aller Christlichsten leüt zur regierung ordnen sollen, gepuret sich inen auch, das sie in die Oberkeit niemand erwehlen, der nit aller dingen der Kirchen Gemeinschaftt halte; ...”

113 참고. De Kroon, *Bucers Obigkeitsverständinis*, 162.

114 MBOL 15, 143-52. 특히 150 (De regno Christi. 1551).

115 MBOL 15, 152 (De regno Christi. 1551): “Cum etenim coniugium res sit politica, homines, ..., non tantum Ecclesiae doctrina et disciplina instituendi et adducendi, uerum reipublicae quoque legibus et iudiciis ad haec expediendi sunt, iuuandi atque compellendi.” 여기서 부씨가 지적하기를, 결혼과 관련하여 사람들은 교회 교리와 지리 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에 의해서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결혼 문제에 대한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H.J. Selderhuis, *Huwelijk en echtscheiding*, 278-87.

116 MBOL 15, 114 와 236-40 (De regno Christi. 1551). 참조. E.-W. Kohls, *Die Schule bei Martin Bucer*, passim. 49-52와 66ff. 여기서 콜스(Kohls)는 부씨의 교육 개념을 “공공의 이익”(gemein nutz)이라는 부씨의 사상과 연결시킨다.

117 MBOL 15, 106, 120 과 130 (De regno Christi. 1551).

“모든 사람은 정부에 순종해야 한다.”¹¹⁸ 즉 정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¹¹⁹ 마태복음 17장 24-27절에서 “그리스도의 모범”(exemplum Christi)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populus Dei)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정부”(magistratus)에 순종해야 한다는 점이다.¹²⁰ 로마서 13장 1절에 따르면 바울 역시 “영혼”(anima)은 자신 위에 세워진 “모든 권세”(omnes potestates)에 종속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친다.¹²¹ 하지만 이 모든 권력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 존재하고 조정되기 때문에¹²² 모든 사람, 즉 백성과 정부 인사들 모두 예외 없이 “유일무이하신 1인자”(unus et solus princeps)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¹²³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 자신의 일에 맞서 싸울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 일, 진리를 고백하는 일, 진리를 향한 열심을 내는 일 등이다.¹²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어긋나는 내용은 어떤 것도 정부가 명령하지 말아야 한다.¹²⁵ 정부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뜻에 반하는 무엇을 요구할 경우, 순종의 의무는 끝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¹²⁶

118 B. Ev. (1536), 372 kantt.: “Omnem hominem parere oportet magistratui.” 참조. MBDS 17, 141 (Ein summarischer vergriff. 1548).

119 MBOL 15, 57 (De regno Christi. 1551): “..., tamen omnes ciues eius, omnesque eorum pastores et doctores oportere mundi potestatibus, quibus Dominus gladii administradonem commisit, esse subiectos, ...”; B. Ev. (1536), 372: “Quare qui non fuerit homo imperio magistratus poterit sese subducere, hominum nemo.” 참고. De Kroon, “De christelijke overheid”, 65.

120 B. Ev. (1536), 372; B. Rom., 569 [sic! 557].

121 B. Ev. (1536), 372와 374; B. Rom., 558: “Omnis anima potestatibus eminentioribus subiecta sit.” 복수로서 “권력들”(potestates)이라는 단어 사용을 부씨가 선호하고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복수형태에 대한 그의 사상을 반영한다. 참고. De Kroon, *Bucers Obrigkeitsverständnis*, 84f. 와 91f.

122 B. Ev. (1536), 374: “Non enim est potestas nisi a Deo: quae vero sunt potestates, a Deo ordinatae sunt.”

123 MBOL 1, 114 (Epistola Apologetica. 1530).

124 B. Ev. (1536), 374.

125 B. Ev. (1536), 374: “At huiusmodi sunt cuncta magistratus edicta, quae nihil pugnans cum gloria Dei imperant.”

“사람은 인간보다는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한다.” (Hand. 5:29)¹²⁷ 하지만 그것으로써 부씨는 결코 그리스도인 각자의 능동적 저항과 무력 저항을 의도하지 않는다.¹²⁸

부씨의 작품 어디에서도 정부에 대항하는 저항권에 관한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사상을 발견할 수는 없다.¹²⁹ 악한 정부가 다스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신실한 왕들”(veri reges)을 공화국에 세우주시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¹³⁰ 이것을 흔히 “수동적 항거”(passiver Widerstand)라 부른다.¹³¹ 왜냐하면 모든 인간적인 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를 해체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¹³² 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가진 자들만이 다른 권력자들의 악행에 대항할 수 있는 능동적인 저항권을 가진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정부들, 즉 제왕적 권력자들과 군주적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시의원들까지도 “제국적 업무”(rerum imperium)에 종사하는 자들이므로 교리와 삶에서 모든 공개적인 악행과 불쾌한 일들 폐기할 수 있고 폐기해야 한다.¹³³

126 B. Rom., 573: “..., quia non possunt [Christiani] deum posthabere hominibus.”

127 B. Rom., 573: “Oportet deo plus obedire quam hominibus.” 저항권의 관련 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plus Deo)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부씨의 강조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De Kroon, “De christelijke overheid”, 66f.; idem, *Bucers Obrigkeitsverständnis*, 145f.

128 De Kroon, “De christelijke overheid”, 67; idem, *Bucers Obrigkeitsverständnis*, 5. n.16과 146.

129 참조. De Kroon, *Bucers Obrigkeitsverständnis*, 144-63; idem, “Bucer und Calvin über das Recht auf Widerstand”, 146-56.

130 MBOL 15, 20 (De regno Christi. 1551).

131 De Kroon, “Bucer und Calvin über das Recht auf Widerstand”, 148.

132 B. Ev. (1536), 374: “Profecto omnes humanae vires inferiores sunt, quam ut magistratum a Deo constitutum exautorent.”

133 B. Rom., 573: “... cum hi principes & magistratus merum imperium habeant, ... Proinde necesse est, vt quique magistratus, quibus merum imperium est, apud eos, qui in ipsorum viuunt Republica, cunctis malis operibus, quae ipsi mala esse non dubirant, terrori sint.” “순전한 최고 통치권”(merum imperium)에 대한 부씨의 법적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De Kroon, *Bucers Obrigkeitsverständnis*, passim. 88ff.; idem, *Bucer en Calvin*, 160.

모든 정부는 하나님께서 독립적으로 세워주신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높은 정부가 기독교의 “경건”(pietas)을 위협할 경우 보다 낮은 정부는 무력 저항권을 행사하여 보다 높은 정부를 대항할 수 있다.¹³⁴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권리”(ius reformationis)라는 부씨 원칙의 기초다.¹³⁵ 이것으로부터 부씨의 정치적 자유라는 개념이 나온다. 모든 정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교회 건설을 위해서만 사용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권력을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이다. 부씨의 정치 모토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계바와 바울과 아볼로와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에 속하고, 이 교회들은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하는데,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속한 것과 같다.”¹³⁶

VIII. 결론

부씨가 교회와 세상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논할 때 놓치지 말아야

134 M. de Kroon, “Bucer und Calvin über das Recht auf Widerstand und die Freiheit der Stände,” in Willem van 't Spijker, ed., *Calvin: Erbe und Auftrag*. Festschrift für Wilhelm Neuser zu seinem 65. Geburtstag (Kampen: Kok, 1991), 150. 148쪽 이하에서 더 크론(de Kroon)은 지적하기를,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부씨가 능동적인 저항을 원리적으로 다루었던, 그리고 성경주석으로 근거를 제시한 최초의 사람이다. 더 크론에 따르면 부씨에게 “경건”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양극 구조, 즉 신앙의 범주와 동시에 윤리의 범주라는 양극 구조로 되어 있다. 참조. idem, *Bucer en Calvin*, 104.

135 MBDS 6/2, 20. 황제와 군주들과 같은 “보다 상위의 권력들”(potestates superiores)과 영주들과 시의원들과 같은 “보다 하위의 권력들”(potestates inferiores)라는 정치적 구조에 대한 부씨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De Kroon, *Bucers Obrigkeitsverständnis*, passim. 4와 150-58; MBDS 6/2, 30. n.34 (Von Ampt der oberkait. 1535)와 53 (Dialogi. 1535).

136 MBOL 15, 121 (De regno Christi. 1551): “Ecclesiarum Christi sunt Cephas, Paulus et Apollo et mundus uniuersus; illae uero nullius, quam unius regis et Domini nostri Iesu Christi, sicut et ille est Dei. 1. Cor. 3 [22-23].”

할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개념이다. 스트라스부르 종교개혁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정의한다. “왕국”(regnum)인 교회 안에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다스리신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적인 실제이자 동시에 하늘 나라다. 그 나라는 항상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실현된다. “그리스도의 나라”(regnum Christi)로서 교회와 “세상 나라”(regnum mundi)로서 국가는 서로 혼합될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부씨가 생각하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시 개념뿐만 아니라, 루터나 츠빙글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구분된다.

부씨에게 교회와 국가는 종말까지 지상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병존한다. 교회는 영적인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죄인들 앞에서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 반면에 세상 정부는 물리적 검을 가지고서 모든 공개적인 죄들을 처벌한다. 세상 정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개혁하기 위해 반드시 교회와 함께 공역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정부는 이 세상에서 최선의 정부 통치 형태로써 “기독교 공화국”(respublica christiana)이라 불릴 수 있다. 교회와 국가는 각자, 무엇보다도 먼저, 유일한 왕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부씨의 주장이다.

【약어】

CCL	<i>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i>
LW	O. Clemen, ed. <i>Luthers Werke in Auswahl</i>
MBDS	<i>Martin Bucers Deutsche Schriften</i>
MBOL	<i>Martini Bucer Opera Latina</i>
MPL	J.P. Migne, ed. <i>Patrologiae cursus copletus. Series Latina</i>
WA	<i>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 1883ff.</i>
Z	<i>Huldrych Zwinglis sämtlich Werke. Berlin 1905, Leipzig 1908, Zürich 1961ff.</i>

[Abstract]**Bucer's Though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the State**

Dae Woo Hwang (Kosin Universit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the earthly government. For the reformers in the 16th century, the word 'ecclesia' is a synonym for the word 'regnum Dei'. This view does not seem as that of modern theologians who think those two ideas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Strasbourg's Reformer Martin Bucer is also one of the reformers. He equates the Church with the kingdom of God. The concept of the kingdom of Christ is characteristic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es and the governments in the whole theology of him. First of all, he considers it as the earthly church that is His body. But it does not simply mean the earthly Church, because He is the King of kings who rules the whole world.

Though the Christ rules his people in this world through his Words and Spirit, the kingdom of Christ is not perfect on the earth until Christ's Second Coming to judge everything of the creature. It cannot be completely realized in this world because of the Satan and the sins. Nevertheless, the Christ is here and now ruling his kingdom and enlarging it throughout the world. He rules his kingdom on the earth by his Words and Spirit. It is sure that the kingdom of Christ has an earthly feature. But we do not deny that his kingdom has also the heavenly characters.

In this world, there is always a conflict between the Church as the 'regnum Dei' and the government as the 'regnum mundi'. At the same time, the two kingdoms are independent from each other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Therefore, the Church and the State could not be mixed and may not be separated. Those two have to be cooperated in Christ who is the King of kings. With the spiritual sword, the Church could open or close the door of the heavenly kingdom for the sinners, whereas the government punishes the open sinners of society with the material sword as political authority. The worldly government must cooperate with the Church for the kingdom of Christ.

For Bucer, the Christian State is the best of the governments which are able to exist in this world, called the 'respublica christiana'. The Church and the State need first to be reigned by Christ as the one and only King of the universe. And then those two have to submit to each other. This is a distinct characteristic in Bucer's thought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the State. In this point, Bucer's opinion is distinguished not only from Augustine's idea of two cities, but also from Luther's perspective of the two kingdoms.

Key Words: Kingdom of God, Kingdom of Christ, Church, Bucer, Luther, Government, Authorities

[참고문헌]

1. 일차자료

1-1. *Martini Buceri Opera Omnia*

1-1-1. Martin Bucers Deutsche Schriften, (Eds.) R. Stupperich e.a.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60ff.

- I. *Frühschriften 1520-1524*. 1960.
- II. *Schriften der Jahre 1524-1528*. 1962.
- VI/2. *Zum Ius Reformationis: Obrigkeitsschriften aus dem Jahr 1535: Dokumente zur 2. Strassburger Synode von 1539*. 1984.
- VI/3. *Martin Bucers Katechismen aus den Jahren 1534, 1537, 1543*. 1987.
- VII. *Schriften der Jahre 1538-1539*. 1964.

1-1-2. *Martini Buceri Opera Latina*

- II. I. Backus. (Ed.) *Enarratio in Evangelion Iohannis (1528, 1530, 1536)*, Leiden: E.J. Brill, 1988.
- XV. F. Wendel. F. (Ed.) *De Regno Christi Libri Duo*, Paris/Gütersloh 1955.
- XV- F. Wendel. F. (Ed.) *Du royaume de Jésus-Christ, édition critique de la traduction française de 1558*, Paris/Gütersloh 1954.

1-2. 16세기에 출간된 부씨(Bucer) 저술들.

- B. Ev. (1527) = *Ennarationum in evangelia Matthæi, Mardi & Lucæ*, 1527 I-II. - (Bibl. No. 14)
- B. Eph. (1527) = *Epistola D. Pauli ad Ephesios*, 1527. - (Bibl. No. 17)
- B. Ps. = *S. Psalmorum libiri quinque*, 1529 (ed. 1554). -

- (Bibl. No. 25d)
- B. Ev. (1536) = *In sacra quatuor evangelia, Enarrationes perpetuae*, 1536. - (Bibl. No. 28a)
 - B. Rom. = *Metaphrases et enarrationes perpetuae epistolarum D. Pauli Apostoli... Tomus primus. Continens metaphrasim et enarrationem in Epistolam ad Romanos*, 1536 (ed. 1562). - (Bibl. No. 55a)
 - B. Iud. = *Commentarii in librum Iudicum*, 1544. - (Bibl. No. 101)
 - B. Eph. (1562) = *Praelectiones doctiss. in Epistolam D. Pauli ad Ephesios*, 1562. - (Bibl. No. 112)

2. 이차자료

- Althaus, Paul. *Die Ethik Martin Luthers*.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65.
- Bornkamm, Heinrich. "Luthers Lehre von den zwei Reichen im Zusammenhang seiner Theologie," in *Reich Gottes und Welt. Die Lehre Luthers von den zwei Reichen*, ed. H.-H. Schrey, 165-195.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9.
- Brockelmann, Brigitte. *Das Corpus Christianum bei Zwingli*. Breslau: Priebatschs Buchhandlung, 1938.
- Cardauns, L. *Die Lehre vom Widerstandsrecht des Volks gegen die rechtmäßige Obrigkeit im Luthertum und im Calvinismus des 16. Jahrhunderts*.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3²
- Diem, H. "Luthers Lehre von den zwei Reichen untersucht von seinem Verständnis der Bergpredigt," in *Zur Zwei-Reiche-Lehre Luthers*, ed. J. Haun, 107-131. München: Kaiser, 1973.

- Duijnste, X.P. *St. Aurelius Augustinus over kerk en staat*. Tilburg: Uitgave van het Nederlandsche Boekhuis, 1930.
- Farner, Alfred. *Die Lehre von Kirche und Staat bei Zwingli*. Tübingen: J.C.B. Mohr, 1930.
- Gäumann, Andreas. *Reich Christi und Obrigkeit. Eine Studie zum reformatorische Denken und Handeln Martin Bucers*. Bern: Verlag Peter Lang, 2001.
- Hammann, G. *Entre la secte et la cité. Le projet d'Église du Réformateur Martin Bucer (1491-1551)*. Histoire et Société. Genève: Labor et Fides, 1984. (= *Martin Bucer 1491-1551: Zwischen Volkskirche und Bekenntnisgemeinschaft*.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Wiesbaden GMBH, 1989.)
- Heckel, Johannes. *Lex charitatis. Eine juristische Untersuchung über das Recht in der Theologie Martin Luthers*. München: C.H. Beck'schen Verlagsbuchhandlung, 1953.
- J. van Oort. *Jeruzalem en Babylon* (s-Gravenhage: Uitgeverij Boekencentrum, 1986)
- K. Koch. *Studium Pietatis: Martin Bucer als Ethiker*. Beiträge zur Geschichte und Lehre der Reformierten Kirche 14. Neukirchener Verlag, 1962.
- Kinder, E. "Gottesreich und Weltreich bei Augustin und bei Luther," in *Reich Gottes und Welt. Die Lehre Luthers von den zwei Reichen*, ed. H.-H. Schrey, 40-69.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9.
- Kroon, M. de. "Bucer und Calvin. Das Obrigkeitsverständnis beider Reformatoren nach ihrer Auslegung von Röm 13," in *Calvinus Servus Christi*, ed. W.H. Neuser, 209-224. Budapest: Presseabteilung des Ráday-Kollegiums, 1988.
- Kroon, M. de. "De christelijke overheid in de schriftuitleg van Martin

- Bucer en Johannes Calvijn,” in *Wegen en gestalten in het gereformeerd protestantisme*, ed. W. Balke e.a., 61-74. Amsterdam: Ton Bolland, 1976.
- Kroon, Marijn de, “Bucer und Calvin über das Recht auf Widerstand und die Freiheit der Stände,” in Calvin: *Erbe und Auftrag*. Festschrift für Wilhelm Neuser zu seinem 65. Geburtstag, ed. Willem van 't Spijker, 146-156. Kampen: Kok, 1991.
- Kroon, Marijn de, *Martin Bucer en Johannes Calvijn. Reformatorische perspectieven Teksten en inleiding* (Zoetermeer: Meinema, 1991).
- Kroon, Marijn de. *Martin Bucers Obrigkeitsverständnis. Evangelisches Ethos und politisches Engagemen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84.
- Locher, Gottfried W. *Zwingli's Thought: New Perspectives*. Leiden: E.J. Brill, 1981.
- Moeller, Bernd. *Reichsstadt und Reformation*.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87.
- Müller, Karl. *Kirche, Gemeinde und Obrigkeit nach Luther*. Tübingen: Verlag von J.C.B. Mohr, 1910.
- Pauck, W. *Das Reich Gottes auf Erden, Utopia und Wirklichkeit. Eine Untersuchung zu Butzers De regno Christi und zur englischen Staatskirche des 16. Jahrhunderts*. Arbeiten zur Kirchengeschichte 10. Berlin : de Grryter, 1928.
- Sizoo, A. *Augustinus over den staat*. Kampen: J.H. Kok, 1947.
- Spijker, Willem van 't. “De ambten bij Zwingli,” in *Zwingli in vierderlei perspectief*, ed. W. Balke e.a., 41-79. Utrecht: B.V. Uitgeverij “de Banier”, 1984.
- Spijker, Willem van 't. “Zwingli's staatskerk,” in *De kerk. Wezen, weg en werk van de kerk naar reformatorische opvatting*, ed. Willem

- van't Spiker e.a., 111-125. Kampen: Uitgeverij de Groot Goudriaan, 1990.
- Stepnens, W.P. *The Theology of Huldrych Zwingli*. Oxford: Clarendon Press, 1986.
- Wendel, F. *L'Église de Strasbourg, sa constitution et son organisation 1532-1534*. Études d'histoire et de philosophie religieuses 38. Strasbourg: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42.
- Wolf, E. *Peregrinatio II. Studien zur reformatorischen Theologie, zum Kirchenrecht und zur Sozialethik*.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65.
- 황대우. “갈뱅의 교회론과 선교,” 『선교와 신학』 24집 (2009): 43-84.